

최연의 산 이야기 <8> 북한산 7

높은 것은 멀리 뻗친다



높은 것은 멀리 뻗친다(가). 수려하게 솟은 쪽두리봉(수리봉).

삼봉(三峰) 정도전과 무학(無學) 대사의 궁궐의 좌향(坐向)에 대한 논란은 <삼한산림비기(三韓山林秘記)>에 다음과 같이 예언되어 있다.

“한산(漢山)은 금국(金局)이라서 궁궐을 반드시 동향(東向)으로 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교가 쇠약해진다. 터를 고르는 자는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 동쪽은 허(虛)하고 남쪽은 낮으니 북악산 아래 터를 잡지 마라. 검은 옷을 입은 도적(倣賊)이 동쪽에서 쳐들어올까 두렵다. 도읍을 정하려는 자가 스님 말을 들으면 나라의 운수가 좀 연장된다. 그러나 만약 정(鄭)씨 성을 가진 사람이 시비를 걸면 5대도 못가서 왕위를 뺏는 변고가 생기리라. 또 2백년 후에는 대환란이 닥쳐서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삼가 조심하라.”

이처럼 <삼한산림비기>에서는 스님의 말을 따르라고 했지만 결국은 정도전의 주장에 따라 북악산 아래 남향으로 궁궐을 지었다. 그 결과는 예언한 바와 같이 되었다. 5대도 못 내려가 왕위를 찬탈하는 변고가 일어났고(세조가 단종을 내리고 왕위에 올랐는데, 세조는 태조의 증손자이니 왕위로는 7대지만 가계로는 4대이다), '200년 후의 대환란'은 임진왜란을 가리키는데 한양으로 천도한지 198년만의 일이다.

북악산을 종산(宗山)으로, 북악(北岳)을 주산(主山)으로, 좌청룡을 낙산(嶽山)으로, 우백호를 인왕산(仁王山)으로, 안산(案山)을 목척산(木覓山)으로, 조산(朝山)을 관악산(冠岳山)으로 하는 지형은 풍수지리적으로 몇 가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는 종산인 북한산의 기운이 주산인 북악에 전해지는데 있어 그 길목이라 할 수 있는 지금의

북악터널 위쪽이 너무 낮아서 병목현상을 이루는 것이고, 둘째는 좌청룡인 낙산이 우백호인 인왕산에 비해 무척이나 허약함이고, 셋째는 조산인 관악산의 화기(火氣)이다.

문제가 있는 곳에는 항상 보완해줄 묘책이 있기 마련이다. 풍수학에서는 너무 허(虛)한 기(氣)의 땅을 보완해 주는 것을 비보(裨補)라 하고, 너무 강(剛)한 기(氣)의 땅을 이완시켜 주는 것을 압승(壓勝)이라고 한다.

지세가 갑자기 좁아져 병목현상이 나타나는 북악터널 위쪽 부분은 비보하기 위하여 매년 날을 정해 백성들을 동원하여 흙을 퍼다 날라 오목한 곳을 메우는 행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때문에 이곳을 매년 흙을 더하는 고개라고 보토현(補土峯)이라고 불렀다.

좌청룡의 동쪽 산줄기가 허약한 것의 비보책(裨補策)으로 낙산의 산줄기를 조금 더 뻗어나가게 하기 위하여 동대문 역사공원 자리에 가산(假山)을 쌓았고, 사대문의 이름이 모두 세 글자인데 동대문만 흥인문(興仁門)이라고 네 글자로 이름 지었다.

관악산의 형세(形勢)는 화성(火星)으로, 예로부터 왕도 남방지화산(王都南方之火山)이라 하여 화기(火氣)의 산으로 보았다. 관악산의 화기를 누르기 위한 압승책(壓勝策)으로 남대문 밖에 인공 연못인 남지(南池)를 조성하였고, 관악산 옆에 있는 삼성산에도 연못을 설치하였다. 관악산 주봉인 연주대에는 아홉 개의 방화부(防火符)를 넣은 물단지(물)를 놓아두기도 하였다.

그리고 동?서?북 대문의 현판을 모두 가로로 설치했는데, 남대문인 승례문(崇禮門)만 세로로 썼다. 이것은 승례문의 례(禮)는 5행(五行)의 화(火)에 해당되고 승(崇)은 불꽃

이 타오르는 상형문자(象形文字)이므로 승례(崇禮)라는 이름은 세로로 써야 불이 타 올 수 있고 이렇게 타오르는 불로 관악의 화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불로써 불을 제압하고(以火制火), 불로써 불을 다스리는(以火治火) 셈이다.

그런데 매년 흙을 더 보충해야 할 보토현에는 아예 커다란 구멍을 뚫어 도로를 냈고, 가산을 더욱 높게 쌓아야 함에도 오히려 남아 있던 가산마저도 밀어버리고 운동장을 만들었다. 남지도 메우고 도로를 놓았다. 아이러니하게도 관악의 화기를 잡아야 할 승례문은 그 기운이 다 했는지 불타 버렸다.

송악의 보부상이 개성인심을 가득 지고 임진나루에 당도하여 도강을 기다리며 잠시 다리질하며 꿈방대 빨며 지 곳이라 부른 곳이 북한산이었다. 백년서생 날갯날이 문전 옥담 처분하여 말단관직 하나 준 주고 얻어 차려고 한양 가는 길에 과천현감에게 문준 패나 주고 도성 안 힘깨나 쓰는 대강 소개받고 남태령 비껴가며 우연산 돌아서서 처연하게 바라보았던 곳이 북한산이었을 것이다.

강원도 철점산골 금강송 베어내어 임금님 사시는 곳 다 시 짓는 목재로 사용하려고 정선 아우라지 포구에서 땃목 엮어 한양 길 떠난 땃목꾼이 양수리 지나 두물머리 어를 뜰에서 불알산 너머로 아스라이 보았던 것도 북한산이었을 것이다.

하여, 북한산은 한양이 도읍으로 터를 잡은 이후 한양을 드나들던 백성들의 애환을 두루 포용하는 넉넉한 품을 지닌 으뜸 산(朝山)으로 역할을 다 해 온 것이다.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우산

점심 무렵, 하늘에 어둠이 번지며 무거워지더니 비가 내린다. “비가 계속 내리면 현준이 올 때 우산 좀 갖다 줘요.” 돈 벌러 나가던 아내가 중학교 1학년이 재학 중인 아들의 귀가를 염려한다. “걱정하지 말고 잘 갖다 와요.” 현준이가 타고 들어오는 버스는 6시 30분경에 정류장에 도착한다. (버스는 아침과 점심 그리고 저녁시간에 맞춰 들어와 산 너머 마을에서 되돌아 나간다.) 정류장까지는 10분 정도 걸어나가야 한다. 그 시간 동안에 아들이 비에 젖을 걸 염려하며 일터로 나가는 아내의 마음을 모른 채하고 넘어갈 정도로 나는 심장이 튼튼하지 못하다. 비는 그치지 않았다. 집 앞을 가로지르는 전깃줄에 앉아 비를 맞으며 산 아래를 바라보는 산비둘기가 창밖을 바라보던 내 시선을 잡았다. 즉각, 위에서 아래로 흔들림 없이 내리는 비를 맞으며 산비둘기는 움직임을 잃고 있었다. 산비둘기는 앞을 바라보고 있는 나 뒤에 있었다. 등을 보이고 앉은 새의 앞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고개를 돌리지 않고 날개도 퍼덕이지 않고 울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새의 뒷모습은, 고개를 돌렸다 다시 보아도 눈물을 닦았다. 웃음이나 분노로 일그러진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다. 산비둘기의 등을 적시며 비는 끊임없이 내렸다. 온몸으로 눈물을 흘리는 새가 있었다.

6시 20분이 가까워오자 나는 한손으로 우산을 받쳐 쓰고 다른 손으로 아들에게 줄 우산을 든 채 정류장을 향해 산길을 걸었다. 비를 맞아 반질반질 윤이 흐르는 시멘트 포장 길을 걸었다. 며칠 간격으로 이어지며 내린 비에 불어난 골짜기 물이 내 몸 정도는 너끈히 휘갈고 갈 수 있겠다며 묵직한 힘으로 산 아래를 향해 달린 다. 골짜기를 가로지른 다리를 건너 산 등성이에 올라 정류장 비가림막 아래에 서니, 하루 내내 느끼지 못했던 차가운 바람을 따라 다가와 몸 속이 단가로 파고들고 있었으나 따듯한 바람도 그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집을 나설 때는 몸을 적실 정도이던 빗줄기가 정류장에 가까이 갈수록 약해지는가 싶더니 우산을 쓰지 않아도 별 상관이 없게끔 빗발이 성겨지면서 가늘어졌다.

버스가 다가와 섰을 때는 버스 문 앞으로 다가갈 필요도 느끼지 못할 만큼 빗줄기는 약해져 있었다. 버스에서 내린 아들이 나를 보고 다가왔다. 나는 말없이 우산을 건네주었다. 아들은 희미한 웃음을 머금으며 우산을 받아 머리 위로 올리며 활짝 펼쳤다. 그 순간, 한 아이의 모습이 어스름처럼 다가왔다. 우리 집에서 10분 정도 더 걸어가야 하는 외딴 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사는 아이였다. 아이는 내 얼굴을 훑어보고는 서둘러 앞서서 걸었다. 아이의 뒷모습에서 배어나오는 검은 그림자가 길게 내 앞에 드리워졌다. 아이와의 거리는 점점 벌어졌으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고 아이와 나 사이에서 어른거렸다. 내 우산이라도 건네줄까? 나는 아들과 함께 쓰면 되지 않겠는가? 비가 억수로 쏟아진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누구에게 우산을 건넬지는 것도 민방스런 비였다. 내가 쓰고 있는 우산을 준다는 것은 더욱 그랬다. 문제는 우산이 아니었다. 내가 아들의 우산을 들고나와 기다렸다가 건네준, 그 행위가 문제였다. 부모와 함께 하지 않는 삶 속에서의 아이에게 내 행위는 폭력이었다. 비가 오는 날, 정류장에서 우산을 든 누군가가 기다려주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가 있다면, 그렇지 못한 아이가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정류장에 나가지 말아야 했을까? 아들이 비를 맞도록 놔두어야 했을까? 아니면 아이의 우산까지 챙겨서 갖고 나가야 했을까? 아들과 함께 저무는 산길을 걸어 집으로 오는 길엔, 보이지 않게 밀려오는 어둠보다 우산이 더 무거웠다. ‘아들을 마중 나갈 시간이 됐는가?’ 시계를 보는 사이에 눈앞에서 사라진 산비둘기의 모습이, 앞서 걸어가는 아이의 뒷모습과 자꾸만 겹쳐보였다.

■ 유승도 (시인)

믿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불교용품
불교서적
불교달력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 붓다쇼핑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515-2988, 555-1087, 508-9377~8
팩스: 508-0101 인터넷: 070-7425-0518

※ 36년 전통의 동진/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달력 카달록은 매년 8~9월에 우편발송합니다.

☞ 용품카드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바림칼라등 30cm	비단접등 12cm	청사초롱	연일 (일반)	일만전구5W (국산)	와까바향 (단)	집게부착 PVC등표 (100개)	불자수지독송 칼라병풍 @500원 (200개 이상)
공단등 (6cm) @2,400원(80개이상)	바림등 (6cm) @2,600원(80개이상)	연일 (일반) 5,000원(1목용)	일만전구5W (국산) 38,000원	와까바향 (단) @11,000원 (10개이상)	집게부착 PVC등표 (100개) @20,000원	불자수지독송 칼라병풍 @500원 (200개 이상)	
공단등 (8cm) @3,000원(96개이상)	바림등 (8cm) @3,300원(96개이상)	연일 (일반) 5,000원(1목용)	일만전구5W (국산) 38,000원	와까바향 (단) @11,000원 (10개이상)	집게부착 PVC등표 (100개) @20,000원	불자수지독송 칼라병풍 @500원 (200개 이상)	
공단등 (10.5cm) @5,000원(24개이상)	바림등 (10.5cm) @5,500원(24개이상)	연일 (일반) 5,000원(1목용)	일만전구5W (국산) 38,000원	와까바향 (단) @11,000원 (10개이상)	집게부착 PVC등표 (100개) @20,000원	불자수지독송 칼라병풍 @500원 (200개 이상)	
공단등 (13cm) @12,000원(12개이상)	바림등 (13cm) @13,000원(12개이상)	연일 (일반) 5,000원(1목용)	일만전구5W (국산) 38,000원	와까바향 (단) @11,000원 (10개이상)	집게부착 PVC등표 (100개) @20,000원	불자수지독송 칼라병풍 @500원 (200개 이상)	
공단등 (20cm) @30,000원(4개이상)	바림등 (20cm) @35,000원(4개이상)	연일 (일반) 5,000원(1목용)	일만전구5W (국산) 38,000원	와까바향 (단) @11,000원 (10개이상)	집게부착 PVC등표 (100개) @20,000원	불자수지독송 칼라병풍 @500원 (200개 이상)	
공단칼라등 (6, 8, 10, 5, 13, 20, 30cm)	바림칼라등 (6, 8, 10, 5, 13, 20, 30cm)	연일 (일반) 5,000원(1목용)	일만전구5W (국산) 38,000원	와까바향 (단) @11,000원 (10개이상)	집게부착 PVC등표 (100개) @20,000원	불자수지독송 칼라병풍 @500원 (200개 이상)	

방수전선간격(50구)
22cm / 23cm / 25cm / 30cm
50cm / 1m ※ 기타주문생산

주은은 현불상 / 02)2004-8216

동명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중요합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외하여 자연스레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최고급 메모리폼 내외)
49,900원 → 44,000원 (10%DC)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뒹뒹) 8cm]

■ 고급형 39,900원 → 35,000원
[가로,세로 동일 × 높이(뒹뒹) 6cm]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수련에 **giban**

심혈관계까지 관리를 사용할 수 있는 용만자 **giban**

나만의 향신세계 **giban**

나만의 향신세계 **giban**